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시민기록단 ‘미추홀의 음식’ 기록				
구술자명	-	면담자	정은주		
면담장소	학익동 카페	면담지원	-		
면담 일시	2021년 9월 17일	회차	1	시간	9분 3초
자료번호	MichuholCA-07-00000890				
구술 개요	35년 전부터 이용했던 가게, 어릴 땐 매웠던 기억, 맛보다 추억으로 먹음, 떡볶이와 만두의 조합이 잘 어우러짐, 주변 사람들은 맛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내 입맛이 변한 거라고 생각함.				
주요 색인어	떡볶이, 건물, 추억, 목욕탕, 가게, 목욕, 맛, 만두, 떡만이, 길이, 그릇, 입맛, 재개발, 장소, 시장, 사진, 찜통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먹게 된 계기				00:00:00~ 00:01:45	▷ 기록기획안 ▷ 구술활용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 ▷ 음성파일 ▷ 기록검수확인서
- 35년 전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용했었음. - 시장 안에 있는 목욕탕에 갔다가 항상 들러서 먹었음. - 어릴 땐 매워서 물을 많이 먹어 배가 불렀던 기억이 있음.					
2. 메뉴와 맛					
- 아줌마가 만두를 빠르게 빚는 모습을 신기하게 봤던 기억. - 지금은 매우 떡볶이가 많아서 오히려 순해진 느낌. - 어릴 때 먹었던 추억으로 먹는 것 같음.					
3. 떡만이					
- 떡볶이와 만두의 조합이 잘 어우러짐. - 고기만두의 느끼한 맛을 떡볶이가 잡아줌. - 초등학교 때는 매워서 따로 먹었고 섞어서 먹는 사람이 별로 없었음.					
4. 자녀					
- 작은 아이가 맛있다고 좋아함. - 떡볶이가 다른 집보다 길긴 하지만 불편하다고 하지 않음.					
5. 변천사					
- 주변 사람들은 맛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내 입맛이 변한 거라고 생각함. - 시장 안에 있었던 가게가 기억에 남음.					
6. 마무리				00:08:07~	



- 옛날 사진을 벽에 걸어놓으면 추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음.	00:09:03	
------------------------------------	----------	--